

2022 지구촌교회

가정예배순서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찬양!
Sharing Jesus!

VOL.12
2022 05-06

이삭을 속인 야곱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복음성가

지 337장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18-29

- 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냐
-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 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 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 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 25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1. 야곱은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음식을 들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나이 들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짐승의 털가죽을 손과 목에 돌렸습니다. 이삭은 목소리가 다른 점을 의심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속임수에 넘어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 해도 거짓과 속임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들판에서 사냥하는 에서의 땀이 뻘 ‘옷’으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안타깝게도 향후 창세기 37장에서 아들들에게 요셉의 ‘피 묻은 채색옷’으로 속임을 당합니다. 거짓을 심은 사람은 거짓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갈 6:7)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심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2. 이삭은 누구를 축복해야 할지 분별할 수 없었고,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으로 일을 꾸밈으며 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 제 것인데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치 아픈 가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실수와 죄악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며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선한 것을 심을 때,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에서의 분노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복음성가

지 328장
주는 평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30-41

- 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 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 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 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 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 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 40 너는 칼을 밧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 41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1. 이삭은 자신의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고, 축복이 끝난 후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위해 고기 요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이야기 합니다. 그 순간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야곱임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히 크게 떨었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며’입니다. 분노가 아닌 두려움입니다.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며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녀를 축복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을 축복하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2.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고 슬퍼 울었습니다.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매우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39절) 물질적인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40절) 동생보다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자신의 잘못, 장자로서 축복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교만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만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죄를 행하게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분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용서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누군가를 향한 분노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과,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벧엘에서 만난 하나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복음성가

지 54장
나의 가는 길

-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신지라
-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 하였도다
-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19 그 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 20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중에 밤을 맞게 되었고, 밖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11절 말씀은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한 곳’에 이르러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나 혹은 예배 장소, 혹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그 ‘한 곳’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와 마냥 도망치고만 싶을 때, 의지할 대상 하나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만 할 때, 잠잠히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닥다리 위에 서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까지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야곱을 품으셨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를 포기하지 않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라반의 딸 라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복음성가

지 465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 01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 02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 0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 0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 0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 06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 07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 08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 0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 10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 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 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 13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
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 14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고단한 광야에서 벤엘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촌 라반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 우물곁에서 야곱은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입학, 결혼, 취업 등의 중요한 모험의 순간에는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이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2. 야곱은 라헬을 만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합니다. 소리 내어 울며 말할 정도로 야곱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헬의 아버지 라반과 동거하게 됩니다. 두 딸만 있었던 라반에게 야곱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 안에서 헛된 만남은 없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라반의 가족을 만난 야곱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만약 야곱이었다면 그날 일기장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라헬과 레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복음성가

지 165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15-30

- 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 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 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 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 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 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 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
하는 바이라
- 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 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 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1. 라반은 자신을 위해 7년간 일한 야곱에게 그 품삯으로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를 속이고 결혼식 당일 레아를 그에게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언니를 동생으로 속인 라반의 간교함은 동생을 형으로 속인 야곱의 기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잔꾀’를 부리며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라반의 ‘잔꾀’에 속아 넘어가는 웃지 못할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야곱처럼 얽은피를 부리며 사는 인생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2. 7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때,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범했던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나요?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복음성가

지 398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9-21

- 0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 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 안식일 규례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 고발하려는 마음을 먹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만 생각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몰랐습니다. 안식일은 온전한 예배의 날이자 온전한 회복의 날이기에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중심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적 신앙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정작 고침 받아야 할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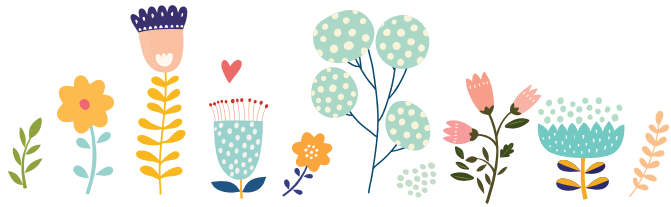
2. 마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만 모든 발걸음이 온유와 겸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툼과 소란을 일으키는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묵묵히 돌보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 그 자체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얻은 경험이나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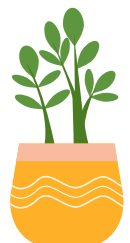
복음성가

지 344장
주님 한 분 만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1-12

- 0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 0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 0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0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0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0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0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0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0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 마태복음 5장~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교훈하시는 것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덟 가지 복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천국을 얻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 채워짐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비로운 사람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세상 욕심을 버린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주님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12절)고 말씀합니다. 여덟 가지 복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억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여덟 가지 복 가운데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금과 빛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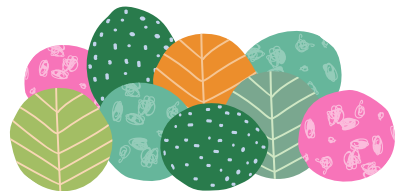
복음성가

지 338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13-16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금에는 썩지 않게 만드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소금처럼 맛을 내는 것과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은 존재의 의미를 잃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밟히게 됩니다.

2. 빛은 세상을 밝힙니다. 빛을 통해 모든 사물은 존재를 부여받게 됩니다. 길이 보이고, 물건도 보이며, 상대방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처럼 어둡습니다. 세상은 존재의 목적과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에 거할 때에야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혼, 맹세, 복수에 대한 말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복음성가

지 219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27-42

-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 36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부터 나느니라
-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1.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어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빼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간음의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간음을 미화시키고 이혼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대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2. 예수님은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꺼이 손해 보는 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지로 강요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가 가족의 화목과 사랑에 끼치는 영향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133:1-3).

가정의 평화는 아무리 과대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복이며 가정예배는 이것을 증진시킵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식사 때에만 자리를 같이 할 뿐 그 외에는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발생한 사건이 집안 분위기를 망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의 화목과 사랑은 사라지거나 식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은 최소한의 의무만 형식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식사처럼 규칙된 시간을 정하고 가정의 불변의 법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모든 식구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상냥한 말과 소박한 바람들을 나누고 서로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일들을 계획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일평생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의 영향을 누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가족은 항상 바쁘지만, 질서 없이 허둥대면서 감사와 기도 없이 밥을 먹는 불신 가족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반 친목을 위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 모임의 횟수가 더해지면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축복을 간구하기 위한 가족 모임이야말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을 증진하는 확실한 방법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화가 틈타지 못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거의 죽어 있던 사랑이 되살아나고 탕자가 가족과 함께 속죄소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정 예배 때 서로가 좋은 뜻으로 얘기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열매를 맺고 가족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혈몬 산의 이슬과 같습니다.

가정 예배는 주로 아버지가 인도하는데 그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가족은 서로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이따금 가족끼리의 반목과 질시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급한 성격과 불쾌한 표정과 냉소적인 침묵, 미움과 신랄한 말과 이간질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가정의 먹구름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가정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불화와 원망과 불신으로 채워지고 미워하며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진정한 부부 사이의 다정함과 오래 참고 견디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만 항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가족 사이의 화목을 도모하는 까닭은 화목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촉진시키는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평화를 조성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가정 예배보다 더 강력하게 가족을 결속시키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화합의 끈은 없습니다.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자: 제임스 W. 알렉산더 미션월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가정예배의 축복을 연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귀한 아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가정으로 부르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남편을 사랑으로 내조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의 일을 돌볼 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범사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찬송하리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녀이름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름을 택
하사 자녀이름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이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였으니 [엡1:3-5]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낳으신 사랑하는 자녀이름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이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거룩과 진리의 빛으로 밝혀 나가는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언제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세상 속에서 외롭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존귀하신 하나님! 외롭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뎀 아기처럼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참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거하는 어느 곳이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